

한라포커스 놀면서 크는 아이, 놀이터를 바꾸자

걸음마도 못 떼는 제주 '기적의 놀이터'

제주도의회 조례 제정 등 놀 권리 보장 움직임 "놀 수 있는 여건 만들자"... 공간 다양성 요구 디자인 디렉터 인력 풀 구성 서울시 사례 눈길

▶ "놀 권리 보장하자"... 조례 준비도= 잘 놀아야 잘 크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겐 이 말이 쉽지 않다. 학업 부담과 시간·기회 부족 등으로 '놀 권리'의 순위가 밀리는 탓이다.

김기욱 (사)놀이하는사람들 제주지부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놀이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그저 멍하니 있거나 공원을 돌아다니는 것 모두가 놀이인데, 그런 시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니 노는 것을 교육화하며 그 의미가 왜곡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 속에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2017년 6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든 데 이어 현재까지 강원,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아동 대표와 놀이 전문가, 청소년지도사,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가 지난달 꾸려져 활동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은 "학업 등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를 어떻게 만들지 6개월간 논의하고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난항 겪는 제주 '기적의 놀이터' =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자는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놀이공간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나 같이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이 놓인 틀에 박힌 놀이터를 바꾸려는 시도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제주에선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적의 놀이터'가 대표적이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창의적 생각과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학교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학교 놀이터 6



서울세명초등학교 실내공간 활용 놀이터(왼쪽)와 서울삼광초등학교 조합놀이대.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곳을 기적의 놀이터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제주남초와 위미초를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도 추진 계획 미흡 등으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놀이터를 만드는 게 처음이다 보니 학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교육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가 걸음을 떼기 위해선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꿈을 담은 놀이터' 조성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학생 참여형 놀이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절

차를 두고 사업 설명,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문단과 디자인 디렉터 인력 풀을 구성·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가 설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2곳으로 시작해 2018년 4곳, 올해 31곳으로 꿈을 담은 놀이터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추진 과정이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구분될 만큼 많다"며 "꿈을 담은 놀이터 목적에 부합하게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 강력사건 발생률 1위 가정폭력·성폭력범죄 2위

최근 3년 전국 16개 시·도 현황분석

제주도가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고 외근 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 건수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지난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주도가 인구 10만명당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경찰청에서 제출한 '외근 형사 1인당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근 형사 1명이 처리한 4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 또한 제주가 가장 많아 4대 범죄 수사부서 인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근 형사 1인당 4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63건이다. 반면 제주는 81건으로 평균보다 18건 많았으며, 경기 남부 75건, 충남 74건, 인천 71건, 서울 5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은 4대 범죄 외에도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전국평균 510건보다 100여건 많은 62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력 범죄 발생률도 전국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가 지난 3년간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해 치안 공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경찰 인력은 치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주는 관광도시 특수성을 감안,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절정맞은 한라산 단풍 한라산 단풍이 절정을 이룬 27일 등반객들이 산행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오늘 제주 아침기는 '뚝' 기상청 "남하하는 찬 공기 영향"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제주지역은 오늘(28일)도 기온이 뚝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2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7시 기준 성산 9.3℃, 윗세오름 1.0℃, 삼각봉 1.7℃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했다. 주요 지점 일 최저기온은 제주 14.9℃, 서귀포 13.9℃, 표선 10.5℃, 고산 14.8℃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8일까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제주 지역은 쌀쌀한 날씨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새벽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최저기온이 0~3℃까지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2℃(평년 12~14℃), 낮 최고 기온은 20~21℃(평년 19~21℃)가 되겠다.

29일부터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아침 최저기온 14~16℃, 낮 최고 기온은 20~22℃의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8일까지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낮에는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상담사 양성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노출된 소방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상담사'를 양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 1961건, 구조 2만9892건, 구급 11만2170건 등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방청이 시행한 소방공무원 심리조사에 따르면 소방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을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8배, 우울증을 앓는 비율은 일반인 보다 4.5배나

높게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성 장애나 수면장애는 소방관 다섯명 중 한 명꼴로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지난 25일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현장 소방공무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동료심리상담사 양성과정 교육을 운영했다.

동료심리상담사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며, 특히 절단사고, 아동사망사고 등의 현장을 경험한 대원에 대해서는 전문 심리상담전문의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스쿠버다이빙 관광객 2명 구조

서귀포시 섬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관광객 2명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쯤 섬섬 인근 해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스쿠버다이빙에 나선 유모(41·서울)씨와 김모

(40·서울)씨가 잠수 후 행방불명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연안구조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에 나섰고, 이들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잠수 지점에서 서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해역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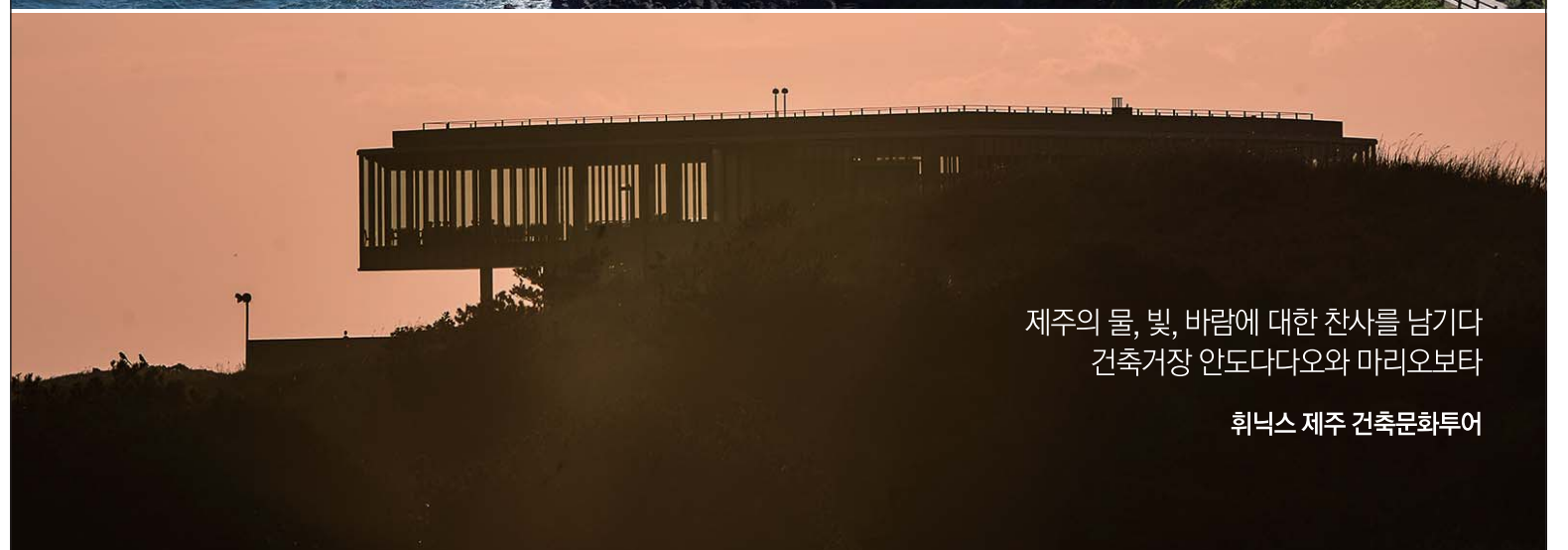
이들은 다행히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일행들과 함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2019 제주감귤국제마라톤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대고의 제주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동쪽 제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제주의 물, 빛, 바람에 대한 찬사를 남기다
건축거장 안도다다오와 마리오보타

휘닉스 제주 건축문화투어



제주 정동향을 향해 뻗은 바다 위에서
일출과 일몰의 신비를 느끼는 컨템퍼러리 아트 레스토랑

휘닉스 제주 민트 레스토랑

신비로운 동쪽 제주,
그 놓치지 말아야 할 순간들

지금, 같이.

phognix
JEJU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107

대표전화 064)731-7000

객실예약문의 1577-0069

홈페이지 http://phoenixnr.co.kr